

## I. 들어가는 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의 모임도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종교개혁이 가지는 기독교 학문과 관련하여 모색할 수 있는 의미를 교육, 실생활, 문화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종교개혁과 문화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중세를 지배하던 스콜라주의를 비판하면서 일어났던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함께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발견했던 인쇄술이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이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함께 인쇄술의 발견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문화적인 배경인 측면을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발생한 문화적인 변화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 문화는 다양한 면에서 서서히 근대적인 문화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은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난 개혁운동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직제,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예배 문화, 소명으로서의 직업 문화, 설득을 위주로 하는 저술과 설교의 등장, 인쇄술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으킨 문화적인 변화를 반추해 보면서, 그러한 문화적인 변화가 오늘날 세속화된 포스트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문화매체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 속성을 제대로 이용하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현재 진행되는 문화전쟁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생산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 II.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

### 1. 르네상스 인문주의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 하에서 일어났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본질을 중세와 구별되는 새로운 인간관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는 해석이다. 부르크하르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질을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성이라고 해석하여, 근대의 출발을 르네상스로 잡았다.<sup>1)</sup> 한스 바론은 르네상스를 근대의 기원으로 본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부르크하르트의 개인주의는 부르니(Leonardo Bruni)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휴머니스트들의 시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sup>2)</sup>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

1) 부르크하르트는 근대의 출발을 종교개혁으로 잡으면서 이탈리아의 15세기 르네상스를 무시했던 헤겔과 미쉬레(Mischeret) 등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근대의 출발로 잡고자 하였다. Jacob Burckhardt, 안인회역,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the Civilization of Renaissance in Italy)(서울: 푸른 숲, 2009)

2) civic humanism을 스테파노 자미니(Stefano Zamagni)와 루이지노 부르니(Luigino Bruni)의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Economia Civile)의 번역자인 제현주는 시민인본주의라고 번역하고 있다.

다고 비판하였다. 이들 인문주의자들은 시민참여적인 공화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바론은 이것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민적 인문주의라고 부르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질이라고 파악하였다. 한스 바론은 이탈리아의 인문주의를 피렌체의 브루니에 토대를 두면서 시민적 인문주의라고 주장한다.<sup>3)</sup> 그가 말하는 시민적 인문주의는 밀라노의 참주 비스콘티의 절대주의의 정치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인문주의자들의 공화주의를 일컫는 말로 철학적인 삶 (vita contemplativa)에 매몰되었던 14세기의 인문주의자들의 삶과 구별되는 정치적인 삶 (vita activa)을 지향했던 15세기 인문주의자들의 학문적 자세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용어이다. 바론의 입장은 가린(Eugenio Garin)으로 이어지는데, 가린은 시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의 성장이 근대정신의 발현을 보여준다는 바론의 견해를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단순한 학문운동을 넘어선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고대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인식을 하여 근대 세계로의 변화와 변혁을 이끌었던 일종의 비판적 시대정신이였다.<sup>4)</sup> 이러한 입장의 학자들의 견해는 휴머니즘을 르네상스 시대를 관통하는 통시적 이념으로, 중세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온 근대적 인간관의 전조로 이해한다.<sup>5)</sup>

반면에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근대적인 인간관으로 보는 이러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파울 크리스텔러(Paul O. Kristeller)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본질을 서양문화 속에 내재하는 수사학적 전통의 한 단계로서 고전에 근거하여 인문과정을 옹호하려는 하나의 특정한 학문적, 교육적 운동으로 파악한다. 그는 부르크하르트 이후 르네상스에 부과된 근대적인 의미를 제거하고 르네상스 당시에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유럽의 수사학적 전통에 입각한 교육·학문 운동으로 평가하는 크리스텔러의 해석은, 르네상스 시기 동안 출현했던 여러 형태의 휴머니즘을 관통하는 가장 일관되고 포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견해를 따른다면,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이 용어를 통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 혹은 인간애와 관련된 어떤 개념과 달리,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던 특정 형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어떤 철학적 체계나 신조라기보다는 문법, 수사학, 시, 역사, 도덕철학이라는 인문학 교과와 관련된 교육 학문운동을 의미했다.<sup>6)</sup>

우리나라의 신학계에서는 맥그래스(McGrath)를 통해 주로 파울 크리스텔러의 견해가 올바른 인문주의의 정의로 받아들여져 많이 소개되었다. 그리하여 인문주의를 이탈리아 인문주의와 북구 인문주의로 나누고, 이탈리아 인문주의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연구를 통해 근원으로 돌아가자(ad fontes)는 운동으로 파악하였다.<sup>7)</sup> 반면에 북구 인문주의는 기독교 인문

3) Hans Baron, *The Crisis of the Early Italian Renaissance: Civic Humanism and Republican Liberty in an Age of Classicism and Tyranny* (Princeton UP, 1966).

4) Eugenio Garin, *Italian Humanism: Philosophy and Civic Life in the Renaissance*, trans. Peter Munz (Oxford, 1965).

5) 이러한 입장은 국내에서 박차섭과 진원숙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박차섭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시민적 인문주의와 함께 인간의 몸체에 대한 성적 관심이 포르노그래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문주의를 인간주의로 해석하고, 이러한 인간주의를 새로운 문화혁명이라고 주장한다. 박차섭, “전복과 자기 만들기로서의 포르노그래피 - 피에트로 아레티노의 『6일간의 대화』,” 『코기토』 81 (2017), 205-233.

6) Paul O. Kristeller, *Renaissance Thought and Its Sources*, ed. Michael Mooney (New York, 1979), 19-23.

7)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이 기독교적인 성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변혁사상의 토대가 되지는 못하였다. 오형국,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개념과 성격,” 『서양의 역사와 문화』 창간호 (2004), 83.

주의라고 명명되고 기독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에서 성경 원어와 교부들의 저술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이해하였다.<sup>8)</sup> 이러한 복구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에라스무스가 중심인물로 활동하며 1516년에 *Novum Instrumentum Omne*라는 헬라이어 성경을 출판하였다. 그가 여기서 *testamentum* 대신에 *Instrumentum*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기록된 약속이란 의미에서 워드 플레이를 한 것이고 1527년판에서 다시 *testamentum*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에라스무스는 성경 언어에서 라틴어의 불가타판의 오류들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헬라이어로 된 성경을 출판함으로써 헬라 원어에 입각한 성경연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 2. 인문주의의 발전과 출판문화의 영향

인문주의자들이 발굴해 낸 여러 가지 고전고대의 작품들과 그들이 저술한 다양한 작품들이 신속하게 출판되어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도왔던 것이 구텐베르크가 145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금속활자 인쇄술이었다. 로마가톨릭은 인쇄술을 사용하여 많은 면죄부를 인쇄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상업적인 전략은 루터의 95개조항의 반박 이후에 무너지게 되었다.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전은 인문주의자들이 만들어냈던 다양한 성경과 책들을 신속하게 출판하는데 기여하였다. 중세 후기 대학의 발전은 서적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1454년에 나온 구텐베르크 성경은 서적 생산 방식에서 하나의 중요한 혁명이었다. 마인츠에서 태어난 구텐베르크는 1434-44년경에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금은세공사로 일하면서 인쇄술을 발견하였다.<sup>9)</sup>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한 후 1448년에 그의 고향인 마인츠로 돌아와 인쇄기를 만들었으며, 푸스트의 자금을 빌려 1454년에 42행 라틴어성경 출판에 성공한 후에 인쇄술은 라인강변의 도시들인 스트라스부르(1458), 밤베르크, 쾰른에 이어 아우구스부르크와 뉴른베르크 등지로 퍼져 나갔다.<sup>10)</sup> 그리고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한 지역이 당시의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뉴른베르크의 안톤 코베르거(Anton Koberger)는 국제적인 인쇄업자로 성장했는데, 24개의 인쇄기를 두고 바젤, 스트라스부르, 리옹, 파리 등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15세기 유럽 인쇄술은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당시 간행된 4만 여종의 인쇄물 가운데 1/3이 독일에서 출판되었다.<sup>11)</sup> 당시 4만종의 인쇄물이 600만권 정도 발간될 정도로 지식의 욕구가 넘쳐나고 있었다.

인쇄술이 발전하자 책의 가격이 내려가고 출판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책의 내용을 공급할 수 있었다. 1456년에 나온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예술적으로 제작되어 소장하는데서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싼 재질의 종이로 인쇄가 되면서 읽고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루터가 1522년에 출판한 신약 독일어 성경은 가격이 1.5길더였는데, 이 금액은 ‘목수나 노동자들의 일주일 품삯’이었다.<sup>12)</sup> 이렇게 싼 가격으로 성경을 살

8) Alister McGrath, *Intellectual Origins of the European Reformation,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4), 127-128.

9) 황정하, “유럽의 금속활자 - 구텐베르크의 발명,” 『인문과학』 97 (2014), 353, 358.

10) 황정하, “유럽의 금속활자 - 구텐베르크의 발명,” 377.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은 유럽의 종이 두꺼워서 눌러야(*press*) 인쇄를 할 수 있었고, 실로 껴서 제본하는 기술에서 양면 인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중해에서 발전된 와인이나 기름 짤 때 이용되었던 압착기술을 응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쇄술의 전파에는 당시 마인츠에서 대주교자리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갈등에서 패배한 데델(Daedel)과가 추방되면서 그에게 속한 인쇄기술자들이 흩어지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최선아, “독일 인쇄문화와 교양 시민 계층,” 『서양사학연구』 37 (2015), 7.

11) 정원래, “인쇄술과 종교개혁,” 『개혁논총』 40 (2016), 312.

12) Sidney M. Houghton, 정중은역, 『기독교 교회사』 (*Sketches from Church History*) (서울: 도서출판 나침

수 있게 되자,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종이의 보급과 독서용 안경의 보급과 함께 글쓰기의 주체가 성직자들에서 도시나 관청과 상인들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로의 확대와 함께 대학의 설립의 확산으로 독서인구가 늘어나 서적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인쇄술 발전의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sup>13)</sup>

인쇄술이 발전되자 성경책들과 교부들의 저술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경건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1454년에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출판된 이후로 불가타 성경과 함께 유럽의 각국어로 불가타 성경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1500년 이전에 불가타 성경이 92판 이상 인쇄되었고, 서로 다른 독립된 이탈리아어 판이 1471년에 나왔으며, 1477년에 불어 신약성경이 출판되었으며, 10년 뒤에 불어 신구약성경이 출판되었다. 시편을 제외한 네덜란드어 성경이 1477년에 출판되었고, 1480년에는 시편까지 출판되었다. 스페인어 성경은 1478년에 출판되었으나, 금서로 지정되어 불태워졌고, 1492년에 새로운 성경이 나왔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1466년의 멘텔성경에서부터 1478년에 평신도를 목표로 출판된 쾰른 성경을 비롯하여 18종의 독일어 성경이 인쇄되어 있었다.<sup>14)</sup> 출판연도를 중심으로 보면 1475-1490년 사이에 2-3년 간격으로 18종 가운데 13종이 출판되었고, 그 이후는 출판주세가 꺾이는데, 이것은 1486년 강력한 성경출판 금지 명령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상당량의 각국어 성경이 출판되어 보급되었다. 이러한 성경출판에는 삽화를 함께 인쇄하여 쉽게 읽히고 구매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1494년의 뤼벡 성경은 풍부한 주해와 함께 성경 독서에 대한 안내를 통해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평신도들에 대한 성경보급은 나중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평신도들의 광범위한 호응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신약성경 서문인 『보혜사』(Paraclesis)에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농민들과 무지한 여성들도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란다고 서술하였다.<sup>15)</sup>

이러한 성경 보급에 대해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을 강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서들을 발표하였다. 쾰른 성경이 출판된 다음 해인 1479년에 쾰른대학은 성경 강독, 특히 여성의 성경 강독을 금지하는 식스투스 6세의 교서를 받았으며, 마인츠 대주교 베르톨트(Berthold)는 1486년에 성경번역과 그것의 평신도들에 대한 보급을 전면적으로 단죄하여 위반자에게는 100길더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포고령은 대단히 위력이 있어 1488년부터 1522년 루터의 독일어 신약성경이 출판될 때까지 4종의 독일어 성경 밖에 출판되지 못하였다.<sup>16)</sup> 1498년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칙령을 내려 주로 독일을 겨냥하여 모든 종류의 도서출판을 주교의 감독과 검열 하에 두었고, 기존의 책들도 검열하여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압수하여 소각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 프랑소와 1세는 1535년에 인쇄소들을 폐쇄하였으며, 소르본느 대학의 출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서적들의 출판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로마가톨릭교회의 성경출판과 함께 평신도들을 위한 종교서적 출판을 금지하였으나, 이미 인쇄술의 발전을 통하여 평신도들을 위한 서적출판이 진행되면서 평신도들의 신앙심이 향상되고 종교개혁에 대한 동참을 위한 토대가 준비되었다.

---

반, 1997), 159.

13) 최경은, “구텐베르크 서적 인쇄술 발명의 사회문화적 배경,” 『독일교육』 51 (2011), 519.

14) 최경은, “루터 이전에 인쇄된 독일어성경의 문화사적 의의,” 『뫼니히와 현대문학』 38 (2012), 203; 정원래, “인쇄술과 종교개혁,” 317.

15) John C. Colin, tr., *Christian Humanism & Reformation: Selected Writings of Erasmus*, 3rd editi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87), 101.

16) Schaff, 『교회사 전집』 6권, 679.

페트라르카 시대부터 이어져온 고전의 발굴은 특히 15세기 초 피렌체의 유명한 책 사냥꾼인 포지오(Poggio Bracciolini) 덕택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sup>17)</sup> 이를 바탕으로 휴머니스트들은 불완전한 형태의 번역이나 발췌가 아닌 원문 그대로 고전을 읽고 해석하며, 또 그것의 의미를 고대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휴머니즘 본연의 이상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르네상스 당대인들에게 휴머니스트들이 다른 무엇보다 고전주의자로 평가되었던 것에서 잘 확인된다. 휴머니스트들의 고전 발굴은 인쇄술의 발전으로 출판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교부들의 전집들이 출판되어 나왔다. 물론 에라스무스의 교부들의 전집출판은 거의 종교개혁과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제롬의 전집을 발간하면서 서문에서 이 작업의 목적은 고대 신학을 회복시켜 참된 신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다운 신학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교부들의 전집을 발간하는 것이었다. 그는 1516년 늦여름에 바젤의 프로벤 출판사에서 제롬의 전집 9권을 편집하여 발간하였다. 그는 수도원에 있을 때부터 제롬을 성인으로 그리고 학자로 가장 좋아했고 존경하여 제일 먼저 그의 전집을 출판하였다.<sup>18)</sup>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어거스틴의 전집이었고, 2권의 책들이 1527년 가을에 나왔고 1529년에 10권으로 된 전집이 출판되었다. 1516년에 제롬 작품과 1529년에 어거스틴의 작품 사이에 1520년에 2절판의 500페이지가 넘는 성 키프리안의 작품이 출판되었다. 1523년 초에 성 힐러리의 전집이 나왔다. 1525년에 헬라어로 된 성 크리스소스톰의 전집이 나왔다. 1526년에 이레니우스의 이단반박론이 출판되었고, 1527년에 네권으로 된 암브로즈의 전집이 나왔다. 1530년에는 5권으로 된 크리스소스톰의 전집이 나왔고 1531년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의 설교집이 출판되었다. 1532년에 헬라어로 된 성 바질의 전집이 나왔다. 이렇게 에라스무스는 교부들의 전집들을 출판할 뿐만 아니라 위작들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교부들의 전집들의 출판은 종교개혁자들이 초대 교부들의 저술들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중세 후기 공동생활형제단들의 Devotio Moderna 운동은 평신도들의 경건을 일깨우고자 하여 많은 경건 서적들을 저술하였고,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경건서적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 Christi)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운동의 영향을 받은 인물 가운데 에라스무스와 루터도 포함되어 있다.<sup>19)</sup> 16세기에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한 인문주의자들은 평신도들의 경건을 일깨우는 저술들을 하였다. 평신도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작품들 가운데는 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는 저술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휴머니즘은 중세교회의 수도원적이고 금욕적인 미덕을 공격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참다운 정신에 인위적으로 덧붙여진 잘못된 교리임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이런 취지에서 저술된 작품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었다. 이 책은 에라스무스가 영국을 방문하고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 집에 기거하면서 일주일 만에 쓴 작품인데, 토마스 모어의

17) 스티븐 그린블랫, 이해원역, 『1417년 르네상스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서울: 까치, 2013). 이 책은 포지오가 1417년 루크레티우스(Lucretius Carus)의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De rerum natura)』라는 책을 발굴하여 필사하면서 근대의 탄생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18) John C. Olin, *Six Essays on Erasmus and a Translation of Erasmus' Letter to Carondelet, 1523*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79), 37-38.

19) Bruce Mansfield, *Erasmus in the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C 1920-2000*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2003), 84; 이용원, “Devotio Moderna에서 본 기독교인의 생활,” 『신학과 목회』 8 (1994), 18; 김명수, “Devotio Moderna 운동과 종교개혁,”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85-193.

환대에 감사를 표하는 뜻에서 ‘모어’라는 이름의 동음이의적인 익살을 덧붙여 책의 제목을 이라고 붙였다. 이 책은 1511년 출판되었고 각지의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풍자는 비록 종교개혁운동은 아니었으나 중세교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개혁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때 에라스무스가 1511년에 쓴 <우신예찬>은 6년 후 몰아칠 거대한 폭풍을 예견이나 하듯 나지막한 경고였던 셈이다.

에라스무스는 이미 1501에 기독교병사의 핸드북(Enchiridion Christianae Militis)이란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을 쓴 목적은 평신도들을 통한 개혁을 기대하면서 썼다. 그는 이 책에서 교회개혁의 주체는 평신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것을 주장하였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철학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리를 깨달아 생활할 때에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의식 중심의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면서 성직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에게 교회개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sup>20)</sup>

결과적으로 볼 때 인문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고전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역사학과 언어학 연구를 촉진하였고, 고전어 연구는 성경연구를 촉진하여 그 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려 오던 소위 진리라고 믿어 왔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당시 교회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인문주의자들은 종교적 폐습을 비판했으나 근본적으로 종교 운동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스피츠(Louis W. Spitz)는 종교개혁은 이렇게 평신도들의 각성된 경건 속에서 오히려 부패해가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간극에서 발생하였다고 해석하였다.<sup>21)</sup> 그와 함께 이러한 종교개혁은 각성된 평신도들이 많이 있었던 자치도시들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었다.

## II. 종교개혁이 문화 변혁에 미친 영향

인문주의가 발전하고 평신도들의 경건이 고조되어가는 반면에 로마가톨릭교회는 점점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나아갈 때, 루터의 이신칭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활동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북부 독일과 함께 취리히, 베른, 바젤, 제네바 등의 스위스 칸톤들로 확산되어 종교개혁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설교, 음악, 드라마, 인쇄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설득의 문화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확산시켜 나갔다.<sup>22)</sup>

### 1. 인문주의의 문화적 확산으로서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인문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종교개혁이 형성한 문화와 인문주의와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루터가 1517년 95개 조항을 못 박고 신학적인 토론을 원하였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자 나타난 학자들은 없었으나 그의 논제를 각 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하여 전파시킴으로써 종교개혁을 확산시킨 사람들은 인문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524-5년 사이에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자유의지논쟁으로 양 진영이 분리되면서 협력관계는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에 대해 맥그라스는 생산적인 오해의

20) Alister McGrath, *Intellectual Origins of the European Reformation*, 40-41.

21) Louis W. Spirt, 서영일역, 『종교개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6-28.

22) Andrew Pettegree, *Reformation and The Culture of Persua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관계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와 함께 종교개혁자들은 인문주의자들이 관심이 가졌던 평신도들의 참된 경건을 설교와 찬송과 다양한 저술들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참된 경건은 수도원이나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자신들의 다양한 저술들을 통하여 인문주의 수사학의 설득력을 가지고 그러한 경건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인문주의의 인식론적인 관심사인 하나님과 인간을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지식의 관점에서 신학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인문주의의 인식론적인 관심사를 신학적인 저술의 토대로 삼은 것은 칼뱅의 기독교강요이다.<sup>23)</sup> 칼빈의 신학활동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신을 토대로 삼아 그 시대정신에 응답한 활동이었다.<sup>24)</sup>

## 2. 종교개혁과 교회 문화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교회문화가 바뀌었다. 이러한 교회문화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만인제사장직의 원리였다.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의 원리가 주장되기 이전에 로마가톨릭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신분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가경자, 복자, 성인으로 그들의 신분이 계급에 의해 구별되었다. 이렇게 로마가톨릭교회 내의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계층화되었던 교회문화는 루터가 만인제사장직을 주장하며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였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분인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됨으로써 이제 교회 안에서 신분적인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자녀이자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sup>25)</sup> 루터가 만인제사장직을 주장한 목적은 당시 가르치는 교회로서 교회를 개혁할 주체인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과 고위성직자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독일의 귀족들에게 개혁의 책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 귀족들이 이제 성직자들과 동일하게 세례와 믿음을 통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교회를 개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만인제사장직의 주장이 제시된 것은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칼빈에 의한 직제 개혁에 따라 4중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평신도들의 교회행정에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목사, 장로, 집사, 박사의 4중 직제 가운데 목사와 장로의 이중 장로직에 의해 평신도의 교회 행정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만인제사장직에 따른 교인들의 평등의 질서가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칼빈은 목사직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직분의 구별에 따른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에 의한 장로법원의 설치에 의해 성도들의 신앙교육 감독, 목회상담과 권징에 따른 영적인 성숙과 양육과 함께 질서있는 신앙생활의 정착이 이루어졌고, 제네바의 도시의 성화가 이루어졌다. 칼빈의 장로교 제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만인제사장의 원리가 평신도들의 행정참여를 통해 대의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선거를 통한 직분자 선출은 사도행전의 모델에 따른 교회질서의 확립이었다.

23) 오형국, “칼빈의 종교개혁사상과 인문주의,” (박사학위논문, 교원대학교, 2005).

24) 김은혜, “신학적 인문주의자, 칼뱅 연구,” 『신학과 사회』 30/4 (2016), 254.

25) 정홍열, “루터의 만인제사장직,” 『신학과 선교』 9 (2005), 185.

### 3. 종교개혁과 출판문화

종교개혁 이전에 출판문화를 통하여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고 평신도 경건 서적들이 보급되어 있었던 것이 종교개혁이 확산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와 함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인쇄술은 종교개혁 사상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고,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인쇄술 발전을 위한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였다.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는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인쇄술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종교개혁은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루터는 1521년 4월에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한 후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으면서 1519년판 에라스무스의 헬라이어 성경을 원본으로 사용하면서 11주만인 1522년 3월 1일에 신약성경 번역을 완성하고 5000천부를 출판하였다. 이 성경은 9개월만에 매진되어 12월에 재판되었으며, 1525년까지 3년 사이에 43종의 다른 판본으로 8만권 이상이 출판되었으며, 신구약성경이 번역되어 출판되는 1534년까지 16-7판에 50쇄 이상 인쇄되었다.<sup>26)</sup> 1534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독일어 신구약 성경은 루터가 사망하던 1546년까지 10만권 이상이 출판되었다. 이렇게 출판되었던 “표준화되고 통일된 성경의 출판”은 인쇄술 발전의 산물이었으며, 평민들이 싼 가격에 성경을 사서 읽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반영한 성경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격렬하게 비판했던 코클레이우스(Cochlaeus)는 “인쇄업자들이 루터의 성경을 마구 찍어 보급하는 바람에 재단사들과 구두쟁이들, 심지어 여자와 무식한 자들까지 성경을 읽게 되었고, ... 신학박사들과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고 불평하였다.<sup>27)</sup>

이와 함께 비텐베르크의 크라나하 출판사는 1522년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출판한 이후부터 루터와 멜랑히톤의 책들을 지속적으로 출판하였다. 이후에 종교개혁 진영에서 나오는 다양한 출판물들이 인쇄되고 보급되면서 인쇄술을 통해 종교개혁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래서 필러는 “책 인쇄가 없으면 종교개혁도 없다”고 평가하였다.<sup>28)</sup> 인쇄술은 종교개혁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독일에서 1517년부터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루터 저작을 중심으로 한 독일어 서적들은 100종에서 474종으로 증가한 반면에, 라틴어 신학서적들은 761종에서 413종으로 줄어들었다.<sup>29)</sup> 스위스 지역에서는 취리히와 제네바를 중심으로 1550년대에 이르면 서적출판이 상당히 늘어나며 독일어 출판물도 상당량을 차지했으나, 1560년대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남부의 재가톨릭화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다.<sup>30)</sup> 독일의 개신교 지역은 1575년에 저점에 도달한 후에 1600년대에 이르면 독일어 서적출판량이 2배로 들어나는 반면에, 가톨릭지역에서 서적출판의 증가는 거의 미미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치도시들에서 15세기와 비교하면 16세기에 자국어 독자비율은 상당히 증가하였다.<sup>31)</sup> 이러한 인쇄술의 발전으로 17세기 초에 신문이 만들어지면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26) Mark U. Edwards Jr., *Printing, Propaganda, and Martin Luthe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125-26.

27) 샤프, *교회사전집* 7권, 273.

28) Bernd Moeller, “Stadt und Buch: Bemerkungen zur Struktur der reformatorischen Bewegung in Deutschland,” in: *Stadtbürgertum und Adel in der Reformation*, hrsg. v. W. Mommsen (Stuttgart, 1979), 30.

29) 최경은, “종교개혁이 서적출판에 미친 영향,” 『독일언어문학』 57 (2012), 247.

30) Ibid., 250.

31) Ibid., 258.



그리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과 다양한 신학적인 저술들이 보급되면서 평신도들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루터의 저술들은 절반은 라틴어로 이루어져 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로마가톨릭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며 개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의 저술들의 절반은 독일어로 이루어져 평신도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다루었다.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평신도들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설교와 함께 독서를 통해 잘 이해하여 개혁된 가르침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평신도들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이 평신도들의 문자화능력을 향상시킨 측면도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진 문자화의 열매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으로 평신도들의 문자해독능력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는 지금도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교양을 가진 시민계층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 4. 종교개혁과 음악문화

종교개혁은 교회 문화 가운데 음악문화를 변화시켰다. 루터는 중세교회가 예배음악에서도 평신도들을 배제시켰던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중찬송을 작곡하였다. 364년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예배에서 성직자가 아닌 속인들의 찬송 및 악기 연주를 금지한 이후 중세 시대에 예배에서 음악은 성직자들의 독점물이었다. 그러므로 회중 찬송의 등장은 ‘속인들의 예배 참여’의 등장의 가시적인 사건이었다.<sup>32)</sup> 회중찬송의 등장은 성도들의 예배 참여라는 의미와 함께 종교개혁 신학을 평신도들에게 주입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담은 가사를 가진 회중 찬송은 회중들에게 종교개혁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어 종교개혁 가치의 내재화를 촉진시켰다. 필러가 인쇄술을 통한 서적출판이 종교개혁 확산에 미친 영향을 주목했던 반면에, 스크립너(R. W. Scribner)는 당시 문맹률이 높았다는 점을 전제로 구술문화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sup>33)</sup> 대중들은 축제 참여, 찬송부르기, 설교듣기, 소문, 사적 대화, 토론 등의 구술문화를 통해 종교개혁의 사상을 수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사상의 전파과정에서 찬송가의 중요성이 20세기 중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데서 루터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독일의 민요의 곡조를 회중찬송인 코랄에 사용하여 회중들이 쉽게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찬양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그와 함께 찬양가사에 자신의 신학사상을 녹여내어 그들에게 그의 신학사상을 전달하고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루터는 평생동안 38곡을 작곡했는데, 그 가운데 24곡은 1523-4년 사이에 작곡하였다. 찬송가의 출판과 보급, 대중의 확산을 기반으로 루터는 1525년 10월 마지막 주에 비텐베르크에서 독일어 찬송을 사용하는 시범 예배를 시행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1526년 독일어 미사에 예배 규범을 발간하여 독일어 예배와 찬송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루터는 1526년에 이르러 모국어를 사용하는 예배를 시행하여, 로마가톨릭과 차별화된 루터파 예배 양식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찬송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코랄이란 독일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보급되었고, 그와 함께 이러한 찬송가들이 낱장이나 찬송가책으로 발간되어 보급됨으로써 찬송가의 표준화와 함께 인쇄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찬송의 도입을 통

32) 오종현, “1520년대 초 루터의 예배 정립과 음악 활동,” 『역사학연구』 62 (2016), 322.

33) R. W. Scribner, “Oral Culture and the Transmission of Reformation Ideas,” in *The Transmission of Ideas in the Lutheran Reformation*, ed. Helga and Robinson-Hammerstein, Dublin, Irish Academic Press, 1989.

하여 중세와 다른 독일어에 기초한 루터파 예배 의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찬송가 작곡의 전통을 바하에게 이어져 루터파 예배음악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개혁파 예배는 성가대, 악기 사용, 찬송가 작곡을 금지하고 엄격한 운율의 시편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개혁신앙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었는데, 예배음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 5. 종교개혁과 미술문화

루터는 음악과 함께 미술도 그의 종교개혁에서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루터는 개혁초기에 성상파괴에 동조하였으나 후에는 점차로 성상파괴의 과격성을 비판하였고 미술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성경에 삽화를 넣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종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522년에 칼 슈타트는 『이미지 제거에 관하여』(*Von abtuhung der Bylder, Vnd das keyn Betdler vnther den Christen seyn soll*)를 저술하여 성상 파괴를 주장하고 나섰다. 칼 슈타트는 제2계명을 엄격하게 이해하여 모든 상들의 사용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칼 슈타트는 상이라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외향화된 예배를 반대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요6:63)를 말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상파괴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시켰다. 이 문제는 지주들에 대한 적의, 세금을 내지 않는 부유한 수도원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성상파괴는 군중들과 교회소유권을 둘러싸고 성관리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칼 슈타트는 이러한 성상파괴를 종교개혁의 좋은 기회로 여겼던 반면에, 루터는 이러한 폭력적인 성상파괴는 사회혼란을 야기 시킨다고 보아 반대하였다. 루터는 형제애와 질서를 호소하며 말씀 전파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칼 슈타트는 제1계명의 위반이며 새기고 그린 우상을 제단 위에 세우는 것은 더욱 해롭고 사악하므로 성상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는 성상파괴가 폭력으로 흐르자 자제를 요청하였고 자신이 성상제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성상파괴에 대한 첫 번째 논의를 전개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성경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80페이지의 팜플렛에서 성경 80구절을 인용하였다. 그는 출애굽기의 20:3-5절의 제2계명을 근거로 성상사용을 금지하였다.

루터도 칼 슈타트와 동일하게 우상이 숭배된다면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루터는 성상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위에 근거하여 질서있게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숭배되지 않는 그림이나 조각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 이미지, 교회 혹은 제단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sup>34)</sup> 루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에서 정신적인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였다.<sup>35)</sup> 루터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정신적인 형상을 만드는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모세의 홍해를 건넌 기념들과 사무엘의 기념들과 같이 기념과 증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루터는 성경에 삽화를 넣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미 15세기 후반에 삽화를 넣은 성경책들이 만들어졌고, 1522년에 출판된 루터의 독일어 신약성경에도 크라나흐가 그린 삽화가 들어가 있었다. 그 결과 이 책이 많이 팔렸으며 사람들에게서 좋은

34) Carl C. Christensen, *Art and Reformation in Germany* (Ohio University Press, 1979), 70.

35) 서상록, “종교개혁의 미술론,” 198.

성과를 거두었다. 루터는 성경주석이나 설교집, 기도서, 찬송가, 교리문답서 등에 목판화, 삽화, 장식 등을 넣어 읽기 쉽게 만들었다. 루터는 제단화의 주제로 최후의 만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루터는 기독교 예술의 예배에서의 위치와 기독교 예술의 교육적 기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루터는 기독교 미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기독교 예술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표현하는데 섬겼다. 예술은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루터는 기독교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교육에서 예술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여와 역할을 주목했던 것이다. 루터는 미술의 시각화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그림에는 말씀을 첨가하여 설명을 붙였다.

반면에 츠빙글리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들은 교회에서 음악과 미술에 대해 성경이 허용한 것만을 허용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여 시편 찬양만을 부르게 하였고 악기사용이나 상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칼빈주의의 입장이 세상에서의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예술의 발전을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예술 작품들의 발전을 지지하였고 풍부한 예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 6. 종교개혁과 근대직업문화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은 신분질서가 사라진 교회문화가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직업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성직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가진 소명이었으나, 평신도들이 가진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속된 직업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gabe)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aufgabe)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한 직업이 되었다. 이러한 직업소명설을 통하여 루터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내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세상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의 소명을 실천해야 하겠다.

칼빈의 직업문화에서 근대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다. 인간의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과 함께 이자수취를 합법화하여 근대적인 직업관의 확립과 함께 다른 지역보다 빠른 자본주의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취를 정당화하여 5%의 이자를 받는 것을 합법화하면서 동시에 15-20%의 고리대금업은 금지시켰다.<sup>36)</sup>

#### III. 종교개혁과 오늘의 문화 -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 형성의 요청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로마가톨릭의 문화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고 꽃을 피워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결과 속에서 합리주의가 등장하여 이성중심의 문화가 꽃을 피우다가, 20세기에 접어들어 그러한 이성을 토대로 삼는 토대주의를 비판하고 비트대주의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여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무엇이냐 옳다는 문화상대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삼는 이성토대주의의 근대문화와 그에 따른 세속화, 그리고

36) 이효재, "칼빈의 "율법의 제3용법"과 이자금지법 해석 ; 구약 율법의 적용 사례 연구," 한국개혁신학 41 (2013),

토대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문화에 직면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사조가 팽배하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문화사조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를 창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야 하겠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학적인 진리를 토대로 중세가톨릭의 문화를 개혁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토대로 세속화되고 상대주의화된 문화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러한 원리들을 깊이 체득해야 하겠고, 그러한 원리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구현해 내는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하겠다.

그와 동시에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확산이 인쇄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매체의 발전의 경향과 함께 그러한 매체에 맞는 기독교 문화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을 통하여 그의 사상이 빠른 시간 내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다양한 매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야 하겠다. 오늘날의 젊은 이들이 쌍방향 의사소통의 SNS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폰의 의사전달도구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다양한 매체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문화매체들을 선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겠다.